

## 농촌청소년들과 더불어 20년, 이상출 목사

김 덕 용(목사, 경북 의성 효선교회)

### 농촌교회가 맞나요?

“장년 20명, 청년 35명, 대학부 90명, 고등부 350명, 중등부 12명, 교회학교 13명”

이것이 2002년 말 현재 위동교회의 교세이다. 교세만 보면 대도시의 중심부나 대학가에 위치한 교회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위동교회는 도시에 자리한 교회도 아니고, 대도시 대학의 제 2 캠퍼스가 있는 지역 근처에 있는 교회도 아니다. 경북 안동시내에서 승용차로 40분 걸리는 임하댐의 한 기슭 농촌 오지, 리(里)단위 마을에 있는 교회이다.

위동교회도 20년 전 1983년도에 여교역자인 이상출 목사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어느 농촌교회와 다를 바 없었다. 당시 위동교회는 1979년 안동 성소병원에서 개척한 교회로 교회를 세운지 채 4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이라고는 평신도 7명과 30여명의 아이들이 전부였다.

## 위동교회 목회 초기 사역

이 목사는 1971년 12월 안동 성서신학원을 졸업한 후 안동교회 여전도회가 보리고개란 마을에 개척한 교회에 파송을 받아 목회의 첫발을 내딛었다. 당시 목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이끌려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1년 반 동안 열심을 다해 성경을 이야기했다. 그 후 성소병원 원목실에 5년, 안동교회 심방전도사로 4년 동안 시무한 후 학업에 대한 갈증을 느껴 일본유학을 결심하고 교회 일을 잠시 쉬고 있었다. 이때 위동교회 교역자가 비어있어서 주일예배만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특별히 거절할 이유가 없어 일본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인도하기로 하고 주일 강단을 지켰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 유학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목회에 임하게 되었다.

당시 교회반경 5km 안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330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매주일 강단이 마지막 유언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었고, 가정을 돌며 축호 전도를 했지



야외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이상출 목사

만 마음 문을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에 있는 아이들 130여명이 모두 교회에 나와 이 아이들이 큰 위안이 되었다.

이 목사는 유교적 전통과 농촌특유의 보수성으로 인해 복음에 쉽게 문을 열지 못하는 어른들에 비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걸고 아이들의 전도와 신앙훈련에 주력하였다. 특별히 방학 때에는 골목성경학교를 열어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예수는 믿을 수 있다는 것과, 아이들이 뛰놀면서도 노래는 예수님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골목으로 찾아가 성경학교를 했고 여름성경학교와 겨울 성탄절을 통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앙에 불을 붙이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커 올라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 자취생을 위한 금요일예배

당시 고등학생이 되면 통학이 어려워 대부분 안동 시내에 방을 얻어 자취를 하였다. 주말에는 집안의 농사일에 떠밀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다. 이 목사는 이들 고등학생들의 신앙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 이들의 신앙을 위해 안동 시내에서 금요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1986년 여름 수련회 준비를 위한 기도모임을 서부교회 교육관의 교실 한 칸을 빌어 교사 1명과 고등학생 4명으로 시작하였다. 이것이 위동교회 고등부의 모태가 되었다. 4명의 학생으로 출발한 금요모임은 급속히 증가하여 8명, 20명, 30명이 되어 교실 한 칸에서 두 칸을 빌리고 나중에는 300명이 들어가는 안동교회의 강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당시 이 목사는 위동교회에 시무하면서 주간에는 안동 경안여자중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으며 안동 생명의전화, 경북 북부 청소년상담실의 창립 멤버였다.

상담실 운영과 전화상담을 통해 자취하고 있는 고등학교 유학생들의 아픔과 고민을 들으면서 이 목사는 몹시 안타까워했다. 그들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짧은 전화상담으로는 그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도, 바르게 인도해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성과 영적인 갈망을 인식하고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중 전도하여 금요모임에 초대하였다. '자취생을 위한 먹거리잔치', '분기별 초청잔치', '세미나' 등 매월 한두 차례 행사를 가졌고 특별히 일년에 두 차례 정도의 안동시내 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초청잔치를 가졌다. 이 결과 매년 800 -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그중 300여명의 결신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자취생들에게 초점을 두고 집중 전도한 것이 금요 예배 모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고등부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이 일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와 은혜로 된 일일 것이다. 매년 100여명을 졸업시키고 남은 200여명의 학생으로 새학기를 맞이하여 또다시 전도사역을 계속하는 이일을 십 수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목사의 확고한 신앙과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몸을 아끼지 않았던 20여명의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고등부 교사들 또한 금요 고등부 모임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이어서 단합이 잘되고 같은 처지에 있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헌신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전도사역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 재정문제, 전도 방법의 문제, 몰려오는 학생들의 신앙지도와 관리 문제 등등. 전도 초청잔치에 오는 학생들 중에 안동시내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몇 있어서 교회와의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금요모임을 이상한 눈으로, 시기와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안동 시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고등부 회원으로 받지 않고 시내교회로 돌려보내거나 시내교회를 소개해주었다. 그리하여 위동교회 고등부는 안동에 유학온 자취생이어야 하고 자취생이라도 시골에 다니는 교회가 있는 학생은 가능한 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

국 위동교회 고등부는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었다. 5%정도만이 신앙 가정의 학생이고 나머지는 불신가정의 학생들이었다.

### 여름 그리고 겨울 신앙 수련회

불신학생들을 전도하여 신자화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항상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회적인 메시지가 대부분이었다. 성장을 위한 단계별 신앙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요일예배의 성경공부는 초신자 위주의 구원의 확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인의 기본적인 교양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금요일예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름 신앙수련회와 겨울 원단 수련회를 통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꾀하고 있다. 지금 일년 사역의 가장 중요한 행사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여름, 겨울 두 차례의 집중 신앙수련회이다. 보통 200-3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여름 수련회는 4박5일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금요일예배의 주제들을 더욱 심화 학습하는 신앙훈련의 기회로 삼고 있다. 반면 겨울 원단수련회는 일년을 살아갈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기회로 삼으며 좀더 깊이 있는 말씀 연구와 세미나로 신앙의 성장, 성숙을 위한 수련회로 진행한다

### 대학동아리 ‘물방울’ 결성

금요일예배와 여름, 겨울 신앙 수련회를 통해 훈련받은 고등부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부가 만들어졌다. 8년여 전의 일이다. 세상의 문화에 빠르게 노출되어 방황하고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대학생을 좀더 조직적으로 돕기 위하여 안동 소재 3개 대학(안동대학, 가톨릭 상제대학, 안동 과학대학)에 ‘물방울’이라는 동아리를 조직하여 신앙과 경건의 훈련을 쌓고 있다. 물방울이라는 이름은 숫자는 적을지라도 맑은 물방울이 되어 사람들의 갈등을 채워주는 생수가 되고 맑은 신앙정신과 경건한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름지어진 것이다. ‘물방울’ 신앙인들은 배꼽티나 진한 화

장, 사치스런 복장 대신에 단정하고 검소하며 경건한 학창생활의 모범을 보여 물질문명과 소비 문화가 팽배한 대학의 학풍을 개선하는데에도 일조를 하고자 한다

## 위동교회의 해외 선교사역

위동교회를 처음 취재하기 위하여 연락을 드렸을 때 마침 이 목사는 2주 가량 러시아 신학교 사역을 다녀온다고 하여 2주 후로 취재를 미루었다. 시골 오지 마을의 작은교회 목사가 러시아 선교 그것도 신학교 사역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 잘 믿기지 않아 거기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이 목사가 러시아 신학교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은 1994년 9월에 평소 친분이 있는 러시아 선교사 이소영 목사의 요청에 의해 계절학교 강의를 처음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2주간의 집중강의로 신학교 사역을 돕기 시작했다. 이 신학교는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비행기 두시간 반정도 떨어진 오세치아 공화국의 도시인 모즈독에 설립되었는데 1991년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고려인들의 요청에 의해 이소영 목사가 1994년 4월에 세웠다고 한다. 이소영 목사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에 의해 점점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지금은 신학교 운영과 장학금 조달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등 사실상 신학교 운영을 도맡다시피 운영하고 있다.

카프카즈 장로회신학교는 그동안 상설 정기 강의를 못하고 계절 강의로 한국에서 들어가야 운영되었으나 작년 9월부터는 현지 목사 네 분에 의해 상설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오세치아 공화국으로부터 교회인가 및 교회지도자 훈련원 인가를 받아 신학교다운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40여명의 학생이 졸업하고 9명의 목사가 임직을 받았으며 현재 80여명의 재학생이 있는데 그중 70%는 러시아인이고 30%는 고려인이라고 한다. 이들이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 복음화와 현지 교회의 중요한 일

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목사의 러시아 신학교 사역은 청년회가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대학부는 중국 하얼빈시내에 작은 처소 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부는 이스라엘 선교사역에 기도의 동역자로 돕고 있다. 제직회는 폴란드 선교훈련을 위해 현지로 떠난 신학생을 돕고 있다. 그리하여 방학이 되면 청년회는 러시아로, 대학부는 중국으로, 고등부는 단기 선교팀을 조직하여 여름 선교인력 봉사사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지역사회 선교사업

위동교회는 청년, 학생을 위한 교회로써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농촌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목사님이 20여년 전 위동교회에 부임하셨을 때는 330호였으나 지금은 230호로 줄었다고 한다. 아직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정들이 많지만 신, 불신을 떠나서 모두가 돌보아야할 양떼라고 생각하고



위동교회 전경

있다. 성탄절에 가정을 돌며 성탄선물을 나누는 새벽송은 20년 동안 한번도 거른 일이 없다. 그리고 복음을 심는 농부의 자세로 한 가정에 한 알 복음 씨앗심기에 집중한 결과 20년 동안 90% 정도 결실이 된 것 같다고 한다. 230여호 마을사람 전부를 위한 목회를 하고 있으며 연세 많은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임종을 지켜봐 드리고, 예배도 드린다. 이러한 노력으로 마을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음으로 마을이 안전하리라는 기대까지 하게 되었다.

### 세 가지 은혜의 선물

이 목사는 20년 목회사역을 되돌아보며 세 가지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고 있다. 첫째는 안동 자취생들을 위한 청소년 사역에 쓰임 받아 지금과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 카프카즈 장로교 신학교 사역에 동참하여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작년 연말에 교회당을 새롭게 건축한 일이다. 교회당 건축은 그동안의 농촌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농촌 목회자들에게 일침을 가한다. “도시에 가야 목회가 되고 읍,면 단위의 교회에 가야 목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자세가 아니냐?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그리고 자신을 농촌교회라는 하나님의 제단에 희생의 번제물로 바친다는 믿음이 있다면, 교회의 크고 작음과 도시, 농촌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라고 역설하신다. 노인들이 많은 것이 오늘의 실농촌교회의 실정이지만 마른 감자씩 밑 땅 속에 감자알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듯이 바짝마른 농촌 어르신들에게는 도시에 나가있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농촌 노인들의 복음화를 통해 자식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에 노인선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신다.

### 인간 이상출 목사



봉화 춘향 산골의 초등학교 5학년 여자어린이 이상출이 여름방학 때 친구의 손에 이끌려 놀러 가자고 간 것이 하기학교였다. 청소년 시절 안동 서부교회에서 열린 부흥회를 통해 성령체험을 하였고 그 후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성서신학원 입학을 결심하였다. 꿈 많은 처녀시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늘 가족부양의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학업에 대한 열망과 평범한 여인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항상 마음속에 있었다. 경안신학원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열정을 확인하였다.

열떨결에 목회에 나섰지만 늘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학업의 길을 찾았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투정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위동교회를 통해 청소년 사역에 나서 자신의 젊음을 불태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더벅머리 청소년들이야말로 이 목사의 사명을 일깨워준 소중한 존재들이다.

위동교회는 농촌교회이지만 낮은 타향살이의 어려움으로 방황하던 학생들을 복음으로 불러모아 고등부를 조직하고 이를 시작으로 청년부, 대학부, 단기 선교팀까지 갖춘 선교 지향적인 교회이다. 이 교회 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여장부 이상철 목사가 계신다.

이상출 목사는 첨단 정보화시대의 화려한 목회보다는 우직한 농부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해바라기가 되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무릎으로 오직 한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분이다. 이 목사의 목회이야기는 농촌에 있으면서도 도시를 향한 해바라기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리라!